

'이달의 엔지니어상'

김중근 현대모비스 연구원

정창근 정원정밀 부장

과 학기술부(장관 朴虎君)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許永燮)는 '이달의 엔지니어상' 11월 수상자로 대기업부문에 (주)현대모비스 김중근(金重根) 수석연구원을, 중소기업부문에 정원정밀공업(주) 정창근(鄭昌根) 부장을 각각 선정하였다.

대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주)현대모비스 김중근 수석은 자동차 내장부품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로서 자동차 운전석 모듈 중 에어백 도어시스템, Instrument Panel 등의 외관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운전석 모듈 부품을 경량화·일체화해 연비 및 품질향상을 이룩함으로써 회사의 매출증대에 큰 공헌을 하였다. 내장부품에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여 적용, 다수의 금속 프레스 부품으로 이루어진 운전석 모듈 부품을 가벼운 소재인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으로 대체했고 다수의 부품을 통합하여 동일한 기능을 갖는 단순한 부품으로 변경시켜 품질의 향상과 자동차 경량화를 통한 연비를 절감한 것이다. 김 수석은 영남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현대자동차에 입사, 의장부품 설계를 담당해 왔다.

고졸 엔지니어, 그리드 품질향상의 주역

중소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정원정밀공업(주) 정창근 부장은 18년간 의료영상진단 장비인 엑스레이 그리드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해 온 엔지니어로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오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엑스레이 그리드의 품질향상과 공정개선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제조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공헌하였다. 이러한 고품질 X-Ray 그리드는 미국,

일본, 유럽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과거 유럽과 일본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세계시장에서 약 2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그리드 원재료를 국산화해 수입대체하였다.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JPI Grid 1100을 개발·적용함으로써, X-Ray 투과율을 30% 향상시켜 피폭의 영향을 줄이고, 더욱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제품의 불필요한 공정을 대폭 줄임으로써 약 18%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원재료 생산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벤치마킹 등을 수행하여 원재료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고 정확하고 수준 높은 그리드의 사양이 증가할 것을 예측, 그리드의 내부각을 정밀하게 세울 수 있는 장치 및 이를 추적해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조립장치에 적용함으로써 15% 이상의 비용 및 작업시간을 감소시켰다. 정 부장은 지난 78년 풍생고등학교를 졸업, 정원정밀공업(주)에 입사하여 그리드 개발 및 생산에만 노력해 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달의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및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엔지니어를 발굴·포상하여 산업기술 인력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현장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엔지니어 각 1인을 선정, 과학기술부장관상과 트로피, 포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된다. ㉔

글_류통은 본지기자 teryu@kofst.or.kr